

말레이시아 근대주거의 대표 유형

-감풍바루의 사례를 중심으로-

Representative Types of the Modern International Houses in Malaysia

-Case Study on Kampong Bharu in Kuala Lumpur-

김민경*

Kim, Min Kyoung

주서령**

Ju, Seo Ryeong

Abstract

Kampong Bharu, an area within Kuala Lumpur, the capital city of Malaysia, is a preserved area for Malay ethnic settlement where many valuable vernacular houses exist since the early 1900s, with relatively slow development compared to other areas. This area is located at the capital city's downtown area, but development was limited since this area was managed under special autonomous right. Partial developments took place at the Kampong Bharu where traditionality was preserved since it is an agriculture based town due to urbanization.

According to the author's previous studies (Ju et al, 2012), the houses of Kampong Bharu can be classified into four major types: the traditional vernacular house, the colonial vernacular house, the modern vernacular house and the modern international style house.

This study was conducted prior to the task of identifying the vernacular element that are inherent to the modern international style house. Representative housing types were identifi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organization and elevation design that are manifested as such were identified.

Keywords : Modern International style House, Kampong Bharu, Spatial Organization, Elevation design

주요어 : 근대주택, 감풍바루, 공간구성, 입면디자인

1. 서론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는 1899년에 건립된 감풍바루(Kampong Bharu)라는 말레이 인종 보호 거주지역이 있다. 이곳은 쿠알라룸푸르 변화가에 위치하지만 특별한 자치권 하에 관리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토속주거에서부터 현대주거에 이르기 까지 병존하고 있다. 즉 말레이시아 주거의 변화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학문적 가치가 높은 장소이다.

선행연구(Ju et al, 2012)에서는 감풍바루의 주택에 대해 토속주거(traditional vernacular house), 식민 토속주거(colonial vernacular house), 근대 토속주거(modern vernacular house), 근대주거(modern international style house)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

는데, 본 연구는 근대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대주거는 전통주거에서 기초를 두고 있지만 발전된 건축기술과 사회문화적 변화가 반영된 유형이라 보고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중요시 해야 할 점에 대하여 임창복(2011)은 '과거 전통사회 요소로서 그 적합성이 받아들여져 여전히 활용되는 지속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풍바루의 근대주거에 내재되어있는 토착적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이에 선행되는 연구로써, 보편화된 주택유형을 추출하여 공간구성 및 입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계획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M.A.S(Malay Agricultural Settlement)에 소장된 주택 도면이다. 2010년 2월 27일부터 4월 23일에 걸쳐 540개 부지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분석은 도면을 통한 공간구성 방식과 입면 디자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입면 디자인 경향은 도면 분석과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파악하였다.

* 정희원(주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수료

** 정희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공학박사,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선행연구(김민경 외, 2012)를 통해 근대주택은 총 165사례로 분류¹⁾되었다. 다음으로 대표유형을 추출하기 위한 평면의 유형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가장 많은 사례수를 차지하는 50개 주택에 대한 공간구성 방식과 입면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II. 캄퐁바루 근대주거의 정착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후 주요도시에서는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의 인구는 1950년대 비해 1970년대에는 약 116%의 폭발적인 인구증가²⁾를 나타내었다. 이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인구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쿠알라룸푸르 내에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거주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해진 면적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주로 서구식 공동주택이 대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목구조로 지어진 토속주택은 수명이 길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리 없이는 보존이 어렵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캄퐁바루의 주택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캄퐁바루의 근대주택은 1960~1970년대에 주로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에 의해 캄퐁바루 인근 지역 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발 바람은 캄퐁바루 내의 개발도 촉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캄퐁바루는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찾아 이주하는 사람들과 증가하는 이민자들에게 정착지로써 위치적 이점이 있으며, 수도내의 다른 지역보다 임대료가 저렴하여 선호되었다.

즉 근대주거라 분류되는 다층 공동주택의 등장은,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와 이에 따른 부지 소유주의 임대 소득 창출에 기인하여 캄퐁바루에 자리잡게 되었다.

III. 대표유형의 공간구성

분석대상은 총 50개로 주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신축된 주택들이다. 단독주택은 1사례에 불과하며, 2층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다.

- 1) 수집한 540개 부지에 대한 자료 중, 도면이 누락된 것(75사례)과 개축 및 증축(209사례)도면을 제외한 256개 사례에 대한 유형분류가 이루어졌다. 유형 분류의 과정을 거쳐 토속주택은 7사례, 근대 토속주택은 80사례, 식민 토속주택은 4사례 그리고 근대주택의 수는 165사례이다.
- 2) 말레이시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50년대를 기준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약 116%, 1980년대 약 104%, 1990년대 약 21%, 2000년대 약 23%, 2010년대 11%로 1970년대와 1980대에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1. 분석 대상 사례의 개요

구분	1층	2층	3층	계
1961-1970	-	14,34,52,56,58,93-A,95-B,110-A,117-B,118-B-1,123-B,143-B-1,151-B,169-B,177-A-1,227-A,234-B,274-B,276-1,277-A,289-B,321-B,325-A-1,339-A,343-B,346-A,391-A,392-B,404-C,456-A,1078-B,1083	-	32
1971-1980	129-A	9, 122-A, 161-B, 281-A, 312-B, 338-A, 342-B, 346-B, 449-B, 1105	76, 287-A	13
1981-1990	-	77	344-A	2
1991-2000	118-B-2,559	-	-	2
2001-2010	1108-B-2	-	-	1
계	4	43	3	50

1. 공간구성 방식

말레이시아 토속주택의 주요 공간은 세람비(serambi)-루마이부(rumah ibu)-다푸르(dapur)의 선형 위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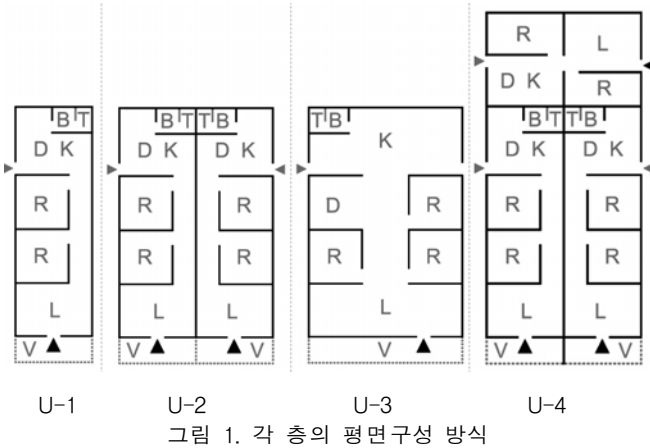
공간 사용방식 및 형태에 따라, 근대주택에서 세람비는 베란다, 루마이부는 거실과 침실, 다푸르는 식당과 부엌으로 대입할 수 있다.

대표 유형의 단위주호는 베란다-거실-침실-부엌과 식당으로 토속주택의 공간구성 위계가 고수되고 있다. 단독주택은 1사례에 불과하며, 단위주호를 나란히 배열하고, 층을 올리는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구성하고 있다.

각 층의 평면은 하나의 단위주호를 사용하는 방식(U-1), 두 개의 단위주호를 배열하는 방식(U-2), 단위주호 두 개의 면적을 통합하여 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식(U-3), 두 개의 단위주호를 나란히 배열하고 후면에 다른 유형의 단위주호를 추가하는 방식(U-4)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속주택에서 외부에 떨어져 배치되던 화장실은 가장 후면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2개 이상의 화장실이 있는 유형도 나타나는데, 주로 침실 사이에 배치하며, U-3에서만 나타난다.

창고, 불박이장을 설치한 수납공간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지고 있다. 불박이장의 경우도 역시 U-3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단위주호에 비해 넓은 면적으로 구성되고 있어 공간구성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U-4의 경우 환기를 돕기 위해 전면 단위주호들과 후면 단위주호 사이에 에어웰(air well, 1사례)을 설치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공동주택은 각 단위주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사례는 총 169개의 개별 단위주호가 조합되어 총 50개의 주택으로 구성된다.

단독주택은 1사례밖에 없었는데 하나의 단위주호로 구성되었다(A). 1층 공동주택은 단위주호를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으로 2가구(B)또는 3가구(C)의 거주공간이 구성된다. 반면 단위주호를 위로 쌓아 다층 주택이 만들어지기도 한다(D).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동주택 구성방식은 나란히 배치한 두 개의 단위주호로 다층주택을 만드는 방식이다(U-2). 이때 모두 동일한 단위주호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E). 반면, 1층과 2층을 다른 단위주호로 구성하는 사례도 나타나는데(F), 2층은 침실-거실-침실-부엌과 식당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2층은 건물의 양 측면에 배치된 계단을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위치가 바뀌게 된다(그림 2).



측면 정면
그림 2. 각 층이 다른 유닛으로 구성되는 사례

1층은 2개의 단위주호, 2층은 1개의 단위주호로 구성되기도 하는데(H), 주로 넓은 면적에 주택주가 거주한다. 주택주가 1층에 거주하는 경우는 반대로 구성된다(G).

E유형에 후면에 다른 유형의 단위주호를 추가하는 경우(I, J)에서는 후면 단위주호의 경우 토속적인 위계가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평면구성 U-4 참고). 하지만 부엌과 식당이 내부공간의 가장 후면에 배치되

는 것은 지켜지고 있다.

폭이 좁고 길이가 긴 부지의 특성상 긴 형태의 평면이 기본으로 사용된다. 모든 단위주호의 출입구가 도로가 면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치되는데, 결과적으로 공동주택 내 모든 단위주호가 토속적 공간구성 위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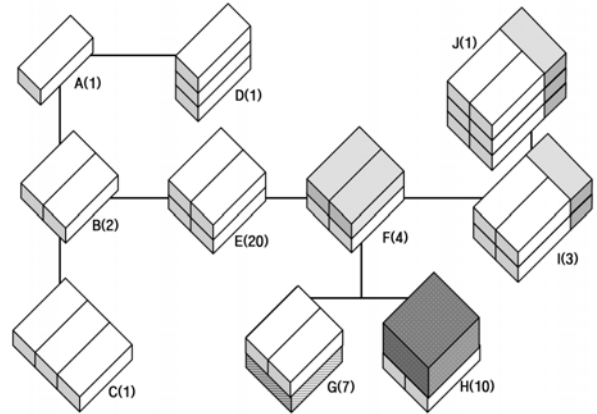


그림 3.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단위주호의 조합방식

2. 입면 디자인

말레이시아의 토속주택은 고상식으로 구성되지만, 근대주택에서는 지상식이다. 이때 콘크리트 기단 위에 집을 올리며, 주택은 조적조로 지어진다.

토속주택에서는 목재패널을 사용하여 벽이 구성되지만, 근대주택에서는 벽돌벽 위에 시멘트를 칠하고 그 위에 페인트로 마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구조 및 재료 상 근대주택은 토속주택과 연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토속주택의 입면구성 요소를 근대적 방식으로 적용한 사례들이 발견된다.

토속주택에서는 긴 박공지붕인 판장지붕(Bumbung Panjang), 맞배지붕 형태의 페락지붕(Bumbung Perak), 모임지붕인 리마지붕(Bumbung Lima)이 주로 사용된다. 사례에서는 페락지붕(28사례), 박공지붕(18사례), 리마지붕(2사례), 평지붕(2사례)의 순으로 나타난다. 형태적으로 토속의 것을 따르며, 지붕의 규모 및 경사는 변화되어 적용되었다. 사용하는 재료도 달라지는데, 주로 타일, 슬레이트, 골함석 등이 사용된다.



그림 4. 페락지붕을 사용한 근대주택 사례

창문은 형태상 더 이상 토속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하지만 전통적인 목재 루버 대신 유리 루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료의 변화가 나타나며 또한, 환기를 위하여 토속주택에서 창문의 상부에 팬라이트(fanlight)를 만드는 것은 형태는 변형되었지만 환기를 위한 기능적 측면은 고수되고 있다.



그림 5. 문과 창문의 팬라이트 사례

토속주택에서 주택의 전면에 가로로 긴 형태로 자리 하던 세람비(serambi)는 남성손님의 접대와 사회, 종교적 활동 장소였다. 세람비는 형태 및 위치적 측면에서 근대주택의 베란다에 대입할 수 있는데, 그 용도는 출입구로 바뀌었다. 난간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1층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된다.



2층

1층

그림 6. 베란다 이용사례

IV. 결론

본 연구는 캄퐁바루의 근대주거를 통해 말레이시아 근대주거에 내재된 토착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된 연구로써, 보편화된 사례의 추출을 통해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통해 파악한 근대주거의 토착적 속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의 단위주호 구성에는 토속적 공간구성 위계가 고수되고 있다. 세람비-루마이부-다푸르의 토속적 위계는 각 단위주호에서 공간의 형태적, 용도적 차원에서 베란다-거실과 침실-부엌과 식당에 대입되

어 그 위계가 유지된다. 이는 공동주택으로 구성되더라도 변치않는다.

둘째, 입면의 디자인은 토속주택의 입면요소를 근대적 방식으로 적용한다. 지붕에서는 형태적 측면에서 토속주택의 것을 사용하고 있으며, 창문 상부의 팬라이트는 형태는 달라지지만 환기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사용이 근대주택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연구의 결과 공간구성 위계와 입면 디자인의 기능적 측면에서 토속성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표유형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연구로써 전체 근대주택의 특성을 정의내는 것에 한계가 있다. 향후 수행될 캄퐁바루의 전체 근대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말레이시아 근대주거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완성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민경·주서령 (2012). 캄퐁바루 근대 토속주거의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4(2), 123-128.
2. 주서령·고영은 (2010). 말레이시아 전통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19(6), 129-140.
3. 주서령·김민경 (2010). 동남아시아 토속주거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1(6), 19-29.
4. Chen, V. F. (1998). The Encyclopedia of Malaysia Vol. 5: Architecture. Singapore: Archipelago Press.
5. Ju, S. R. and Kim, M. K. (2011). A Study of Modern Vernacular Houses in Kampong Bharu, Malaysia. mAAN Seoul 2011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89-101.
6. Ju, S. R. and Saari, B. O. (2010). A Typology of Modern Housing in Malaysia,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Ecology, 11(1), 109-119.
7. Ju, S. R. & Saari, B. O. (Eds). (2011). Modernization of Vernacular Houses in Kampong Bharu, Kuala Lumpur, Malaysia. Korea: Asian Research Center for Housing, Kyung Hee University & Faculty of Built Environment, University of Malaya. Malaysia.
8. Ju, S. R. & Saari, B. O. & Ko, Y.E. (2012). Modernization of the Vernacular Malay House in Kampong Baharu, Kuala Lumpur.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11(1), 95-102
9. Lim, J. Y. (1987). The Malay House: Rediscovering Malaysia's Indigenous Shelter System. Malaysia: Institut Masyarakat.
10. Nasir, A. H.(1997). The Traditional Malay house. Malaysia: Kim Hup Lee Printing Co. Pte. Ltd.